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꼬옥 읽어주면 되,,

1주차	일시	12 월 20 일 19 : 00 (구글 미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선영(2111207)	○
		이경남(2111181)	○
		홍지혜(2111148)	○
진도	도서명: 소년이 온다	진도페이지: 7 p. ~ 45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선영, 홍지혜, 이경남]</p> <p>[인상 깊은 장면]</p> <p>김선영: “내가 입은 것과 똑같은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얼핏 보인 것 같았다. 운동화가 벗겨진 맨발이 꿈틀거린 것 같았다”</p> <p>같은 목적, 같은 신념으로 선두에 섰던 용기는 총탄 한 발에 사라지고 내 몸 하나 숨기기 급급해진 그 때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꿈틀거리는 발을 뒤로 한 채 집에 들어서야 했을 때, 사랑채의 허전함이 얼마나 사무쳤을지 차마 짐작조차 못하겠다.</p> <p>이경남: “조심스럽게 네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냐.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되니까 총을 쏘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p> <p>1장부터 휘몰아치는 그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를 보며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한 문장 한 문장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 같다. 특히, 위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보호받아 마땅한 국민이 같은 나라의 ‘반란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살되었다.’는 이 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꼽았다.</p>		

홍지혜: "꿈보다 무서운 생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장부터 바로 총격과 시체를 묘사할 줄은 몰랐다. 조금이라도 일상을 그릴 줄 알았는데, 그건 꿈과 같이, 화자의 바람으로 회상되는 과거들뿐이었다. 그래서 더 와 닿았고 감명 깊었다.

(공통)

"시상에 옥상이여, 네 옆에 서 있던, 머리가 반쯤 벗어진 아저씨가 숨차게 중얼거렸다. ……옥상에서 영규를 봤어", "더이상 아무도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옥상에서의 총격전은 5·18 민주항쟁 당시 실제 도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와 닿았다. 총에 맞은 사람들을 부축하려고 하다가 또 총에 맞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한두 명을 데려올 수 있었던 그 때의 참혹함이 떠오른다.

"여태 초등학생같이 키가 안 자란 정대. 그래서 정미 누나가 빠듯한 형편에도 우유를 배달시켜 먹이는 정대. 정미 누나와 친남매가 만나 싶게 못생긴 정대. 단춧구멍 같은 눈에 콧잔등이 번번한 정대. 그런데도 귀염성이 있어서, 그 코를 찡그리며 웃는 모습만으로 누구든 웃겨버리는 정대." … (중략)

‘너’의 친구 정대가 누구보다 해맑고, 누구보다 용감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문장이다. 정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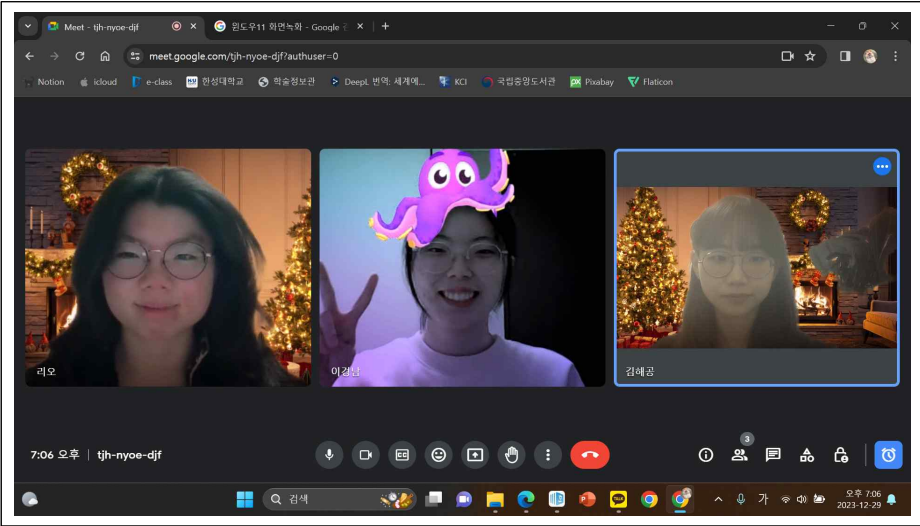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적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마주 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겨우 산골을 넘어와 마주한 끔찍한 현실, 그 두 눈을 마주하며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새기는 동호의 모습은 신군부를 상대로 거대한 싸움을 해야만 했던 광주 시민을 떠올리게 한다. 거대한 공포 앞에서 굳게 싸웠던 광주 시민들이 대신 짊어져야 했던 수많은 목숨이 무겁게 느껴졌다.

[궁금한 부분(추후 토론회 볼 주제)]

1. 제목인 ‘소년이 온다’의 의미
2. 책 표지의 꽃이 의미하는 것

일시	12 월 29 일 19 : 00 (구글 미트)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선영(2111207)	○
	이경남(2111181)	○
	홍지혜(2111148)	○
진도	도서명: 소년이 온다	진도페이지: 46 p. ~ 103 p.

2주차		
	[좌측부터 홍지혜, 이경남, 김선영]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 고정 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장과 제목의 연관성 2. 인상 깊은 장면 <p>1. 각 장과 제목(소년이 온다)의 연관성</p> <p>김선영: 1장의 '어린 새'는 '훈'을 나타낸다. 훈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소년'은 한이 서린 채 누군가를 지켜보거나 어른거리는 훈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소년은 2장의 제목처럼 '검은 숨'을 내뿜는 정대를 비롯해 거대한 짐승의 사체 처럼 쌓인 수많은 목숨과 그들을 애타게 기다렸을 가족, 친구, 연인, 동료이다.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은 '훈'이 되어버린 소년들과 '생존'하여 살아가게 된 소년들의 불쾌하고도 그리운 만남을 투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 3장에서의 '일곱개의 뺨'은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벌과 같았다.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죽음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생시(生時)의 고통은 사라져버린 이들을 충분히 기리기도 전에 몰아쳐왔다. 부당한 폭력을 애써 잊어야 했으며, 잊기 위한 나날에는 치욕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서려있다. 찢어질 듯한 고통은 차차 잊어가겠으나 결코 그들의 폭력과 추악함을 잊지 않는다. 중국에는 희생자가 모두 숭고히 기억될 수 있도록, '소년'들이 모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p>	

이경남: 그 어린 나이에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함께한 동호는 날개도 펼치기 전에 아스라진 어린 새로 느껴졌다. 1장에서는 그런 동호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호, 즉 '소년'을 주제로 지금의 우리에게 그날들을 전해주고 있다고 느꼈기에 이러한 부분이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홍지혜: 소설의 제목 「소년이 온다」와 각 장의 연관성을 생각하자, 각 장의 소재 목이 문득 궁금해졌다. 소재목과 내용은 직관적으로 연결되며, 모순됐다. '검은 숨'은 총에 맞아 죽은 정대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혼은 숨을 쉬질 못한다.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은 숨은 분수대에서 정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총성과 함께 놓쳐버린 동호가 내쉬는 숨 같았다. 침울하고 암담한 숨 말이다. 한숨은 아니다. 분수대의 총격 사건 이후로 동호가 내쉬 숨은 매번 검은 숨이었을 것이다. '일곱개의 뺨'은 그 날, 하루에 맞은 일곱 대를 잇기 위한 일주일 동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오히려 일곱개의 뺨을 아니 그 이상의 뺨을 기억한다. 책은 편집자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세상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무참히 검열당한 기억, 대학생 때의 학생운동과 학식당에서 머리채가 잡힌 기억, 혼자 살아남은 기억 그리고 동호의 모습을 일곱 개의 뺨과 함께 절대로 잊지 않는다.

각 장에서 화자 모두, 처음 독자에게 온 소년인 동호를 찾는다. 잊지 않고 찾으면 그 소년이 다시 올 것처럼 그를 부른다. 소년은 첫 번째 뜻인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의 한자는 '적을 소'에 '해 년'이다. 그래서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이란 뜻을 두 번째로 가졌다. 소년이 온다는 건, 젊은 나이에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이었던 '너', '그녀'가 겪은 일이 다시 온다는 것 같다. 찾으면 기억 속에서 살아오고, 찾지 않아도 어느 순간 소년이 온다. 왜냐하면 '소년' 자체가 전두환 정권의 학살로 원래 살아갈 나이 보다 적은 나이에 죽은 사람을 의미하고, 우린 그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인상 깊은 장면

김선영: “(……)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걸 봤는데요, 그래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민주항쟁이 있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유월, 분수대가 눈부신 물줄기를 뿜는 것을 보고 그 누가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라면, 광주에 묻힌 사람이라면 분명 은속이처럼 몇 번이고 전화해 그 찬란한 물줄기를 꺼트리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경남: “혼은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2장으로 넘어오기 직전, 1장 마지막 페이지 중 한 구절이다. 정대의 혼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2장이었기에 더욱 인상 깊었다. 정대의 혼을 통해 진행되는 2장은 실상 혼의 눈이지만 제3자의 눈처럼 상황을 바라보고 서술하였기에 2장에서는 제목에서의 '소년'이 마치 정대처럼 느껴졌다. 물론 소년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돌아가지 못해 떠도는 정대의 혼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80년대의 5월 그날에 머물러 있다고도 느꼈으며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그날'을 전해 주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이 책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생존자, 그리고 떠난 이들의 주변인의 삶을 보여주는 문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무자비한 학살과 처리로 인해 그들 곁에 돌아가지 못한 시신, 그리고 돌아가지 못한 영혼은 여전히 80년 그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3장에서 검열로 인해 불태워지는 원고 역시, 마치 돌아가지 못한 영혼처럼 느껴졌다.

홍지혜: “그녀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페이지들이 불탔다는 것이다. 불에 타서 검은 숯덩어리가 되었다.”

책을 덮어도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인상깊은 장면으로 꼽았다. 그 문장은 ‘그녀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페이지들이 불탔다는 것이다. 불에 타서 검은 숯덩어리가 되었다.’ 이다. 사실 페이지들은 불타지도 않았고, 검은 숯덩어리가 되지도 않았다. 검은 잉크에 뭉개져 직사각형의 책이 아닌 삼각기둥 모양의 책이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저 문장이 기억에 남았다. 불타버린 것은 그 페이지들에 담긴 글 속의 사람들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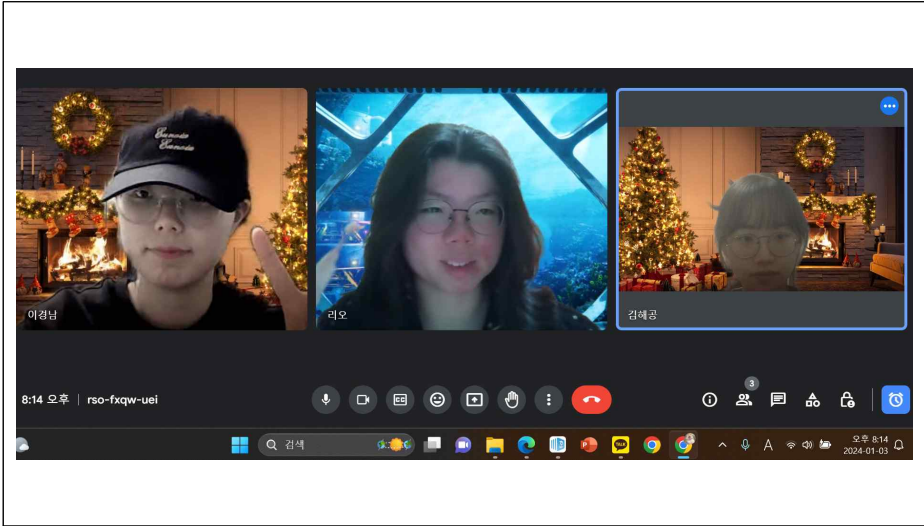
3. 책 표지의 꽃이 의미하는 것(안개꽃)

김선영: 흰 안개꽃의 꽃말은 ‘죽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이라고 한다. 『소년이 온다』의 표지로 안개꽃이 사용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권리 찬탈에 대응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앞서 달려 나갔던 동호와 정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마음 즉, 양심의 찬란함을 지니고 있었다. 어지럽게 난사하는 총알 사이에서 수없이 꺾이고 되살아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의 끝이 죽음이 되기도 했으나 그들은 결국 용기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다.

소설을 읽기 전에는 책 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었는데, 한강 작가가 잔인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서막과 종막을 서서히 그리고 날날이 밝혀내고 있어 책을 모두 읽고 나니 표지를 왜 안개꽃으로 장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경남: 어렸을 적부터 하얀 안개꽃의 꽃말은 ‘죽음’이라고 알고 있었다. 1980년 5월은 그들의 육체를, 그리고 혼을 앗아간 죽음이 스쳐간 시대라 생각하였기에 마냥 그들의 ‘죽음’과 ‘슬픔’을 표현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 ‘약속’이라는 하얀 안개꽃의 또 다른 꽃말을 듣고, 왜 죽음을 나타내는 많은 꽃 중 하얀 안개꽃을 보여주었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양심을 끌어안고 정의를 외치기 위해 나선 아이들과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여겼다. ‘양심에 손을 얹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양심은 인간의 마음속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의식 및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먼지가 쌓이기 전, 얼룩이 지기 전의 순수한 마음을 안고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저항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다음으로, ‘약속’이라는 꽃말은 ‘기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었다. 이 단어가 생각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전에 본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와 뮤지컬 ‘광주’가 생각났다. 그 작품 속들에서 외치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오니까.”라는 은숙의 전화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를 통해 그들이 21세기의 우리에게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1980년의 그들에게 기억하겠다고 전하는 약속 같았다고 느꼈다.

		<p>홍지혜: 안개꽃이 피어날 때는 안개가 서린 것처럼 희뿌옇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꽃의 이름이 안개꽃이 되었다. 게다가 안개꽃은 무수히 많은 잔가지로 갈라져서 그 끝마다 눈송이처럼 희고 작은 꽃을 피워낸다. 그게 마치 나뭇잎의 광주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뻗어나간 수많은 잔가지처럼 광주는 광역시로 많은 사람이 살았다. 각자가 꽃필 때 희뿌옇게 되어 그 꽃을 바로 볼 순 없겠지만, 얼마 안 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장갑차가 광주로 들어왔고 채 핀 꽃을 보기도 전에 뭉개져 버렸다고 생각한다. 흰 안개꽃의 꽃말이 실현되고 만 것이다. <소년이 온다>에서 여러 소년은 잃어버린 소년을 사랑해서 그들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한다. 사랑과 죽음은 비슷한 크기의 공통을 동반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의 그날 동안 소년을 잃어버린 사람들 모두 두 가지의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꽃핀 책 표지가 알려주는 것 같았다.</p>
--	--	--

	일시	1 월 3 일 20 : 00 (구글 미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선영(2111207)	○
		이경남(2111181)	○
		홍지혜(2111148)	○
진도	도서명: 소년이 온다	진도페이지: 104 p. ~ 177 p.	
3주차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이경남, 홍지혜, 김선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 고정 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장과 제목의 연관성 2. 인상 깊은 장면 </div> <p>1. 각 장과 제목(소년이 온다)의 연관성</p> <p>김선영: 4장에서 선생과 인터뷰를 하는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죽었고, 아직 나는 살아 있는지.”라며 수 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죽음을 자책하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의심한다. 5장에서 ‘선주’는 동호의 죽음에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말한다. “그래서 나에게 오곤 하는거야? 왜 아직 내가 살아 있는지 물으려고.” 선생이 인터뷰를 요청한 이들의 내면에는 늘 “나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가”라는 정답 없는 물음에 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의 현실과 꿈에는 불현 듯 ‘소년’이 찾아오는 것이다. 당시의 상처, 고통, 분노, 죄책감의 기억을 이들은 저항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 소년들은 언제나 소년인 채로 찾아온다. 소년인 채로 죽었으므로, 소년인 채로 죽음을 보았으므로.</p> <p>이경남: 4장 제목에서의 ‘쇠’는 폭력성을 의인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믿을 수 없이 잔인한 인간들이 그릇된 목표를 향한 과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학살을 위해 들은 ‘총’과 시대의 여러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그 누구보다</p>	

발벗고 나서 자유를 외친 이들이 지키기 위해 들은 ‘총’(우리는 총을 들었지, 그렇지? … 그게 우릴 지켜줄 줄 알았지. … 하지만 우린 그걸 쓰지도 못했어.)이며, ‘피’는 총을 들었으나 결국 쓰지 못한 그들이 흘린 피라 생각하였다.

홍지혜: 이번 장들의 소재목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읽다가 담담하게 알게 되어서 슬펐다. 쇠는 감옥의 창살이고 피는 고문이다. 밤의 눈동자는 달이기도 하고, 고문실에 하나 달린 전등이기도 하다. 임선주에게는 둘 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소년이 어디에도 있다. 감옥에도 사촌뻘에 어린 영재가 있었고, 광주를 다시 방문한 날, 외벽에 붙어있던 사진에는 동호가 있었다. 정말로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소년이 온다. 영혼이든 기억으로든 정말로 찾아오고 있다.

2. 인상 깊은 장면

김선영: “아니요, 쓰지 않았습시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시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시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시다. 우린 쓸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쓸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총질을 해댄 군인과 이를 명령한 독재자의 추악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부당함에 대응하는 ‘송고한 심장’은 그들의 총으로도, 총을 쓸 수 없는 스스로의 선택으로도 수 십 번 깨져버렸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총을 쥐게 만든 그들이 원망스럽다.

이경남: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란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입니다. …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었던 ‘인간성’에 관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장이 아닐까 싶다. 이와 동시에 가장 읽기 힘들고 숨이 막혀 책장을 여러 번 덮기도 하였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지,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인지, 이 욕심이 불러온 수많은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끊임없는 질문이 시작되었다. 인간이란 무엇이지? 인간성이란 무엇이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어째서 인간은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 또한, 여전히 이 질문을 품게 되는 사회를 바라보며 착잡해지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마지막 페이지 증언을 위한 그 누군가의 말이 모두를 향한 질문이라 생각해 마음에 박혔다.

홍지혜: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니까.”

장마다 한 문장씩 기억한다.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와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니까.’다. 왜 어떤 인간은 사람을 짓밟고, 고문하며 총을 갈기지만, 왜 어떤 인간은 자기 몸을 지킬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을 겪고 뵈음에도 대항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 그래서 기억한다.

4주차	일시	1 월 10 일 19 : 00 (구글 미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선영(2111207)	O
		이경남(2111181)	O
		홍지혜(2111148)	O
진도	도서명: 소년이 온다	진도페이지: 178 p. ~ 215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홍지혜, 이경남, 김선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 고정 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장과 제목의 연관성 2. 인상 깊은 장면 </div> <p>1. 각 장과 제목(소년이 온다)의 연관성</p> <p>김선영: 6장은 동호의 어머니가 화자로 등장한다. 늦둥이었던 동호의 생김새, 성격, 마음씨까지 모조리 엄마의 시점에서 서술하는데, 엄마만의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본 동호가 더욱 어리게 느껴져서 죽음이 용납되지가 않는다. 엄마가 가장 바랐던 것은 동호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작디작은 소년이 집으로 돌아오면, 군인들이 거칠게 문을 두드리더라도 부모의 품 뒤로 숨겨 죽음과 가장 먼 아이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호는 오지 않았다. 어미가 그토록 바랐건만, 결국 오지 못했다. 가장 늦게 만난 아들이 가장 먼저 어미를 떠났다. ‘꽃 핀 쪽으로’ 어미를 밀어주고, 따스한 빛을 받게 했던 동호는 누구에게 쫓길 새라 먼 곳으로 뛰어가 버렸다.</p> <p>모두가 바랐던 소망, 소년이 오기를 바랐던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소망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그리고 소년들이 우리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다.</p>		

이경남: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인 “엄마아,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야,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라는 구절을 보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동호(동호의 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렇기에 「소년이 온다」에서의 ‘소년’은 동호(동호의 혼)이라 생각하였다.

홍지혜: ‘꽃 핀 쪽으로’에서 소년 동호의 엄마가 등장한다. 그녀는 모든 걸 동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준다. 나이 큰형, 작은형, 아버지. 그녀가 전화를 받고 엄마들이 모인 유족회에 나가서야, 동호의 ‘엄마’라는 걸 알았다. 이상하게도 화자는 손주를 잃어버린 할머니 같았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내겐 할머니라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혹은 할머니의 나이가 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슬펐다. 자식을 두 번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 장에서 엄마는 소년인 아들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다. 까까머리에 하늘색 체육복을 입은 그가 다시 한 번이라도 오기만을 원한다.

‘눈 덮인 램프’는 ‘나’가 등장한다. 정말로 1인칭 화자로서 ‘나’ 말이다. 그래서일까, 마치 ‘나’가 작가 같았다. 이 책을 쓰기 위해 12월 초부터 자료를 보다가 악몽에 시달린 작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저 4개월 전, 광주에서 살던 집을 동호댁에 팔고,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온 둘째 딸이었다. 그 집에 살았던 ‘나’는 처음엔 어른들의 대화로 그다음엔 사진집, 라디오, 자료, 전시관에서 상영하는 영상으로 광주를 본다. 광주로 내려간 ‘나’는 실종된 두 명의 중학생 중 한 명인 강동호에게 간다. ‘나’는 소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소년에게로 간 사람이다. ‘나’는 정말 소년에게 갔다. 그의 무덤 앞, 초를 올렸다.

2. 인상 깊은 장면

김선영: “어찌구나, 젓먹이 적에 너는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했ندی. …… (중략)”

191쪽에서 엄마가 동호의 삶을 기억하며 서술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 쪽을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인 동호의 사랑스러움이 와 닿으면서도, 동호의 죽음이 떠올라 아득해진다. 순하게 생겼던 동호, 어머니를 보며 환히 웃었던 동호, 따스한 곳으로 어머니를 이끌었던 동호, 정대와 해맑게 노는 동호, 시인처럼 말하던 동호. 역할의 무게를 악용한 누군가의 욕심과 잘못된 명령, 그것이 동호를 죽게했다는 사실이 비통하다.

이경남: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1980년 그날들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읽으며 고통스러웠다. 3장의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4장의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라는 문장이 유독 생각난 부분이였다. 에필로그에 나온 문장이지만 6장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도, 아니 어찌면 시작부터 끝까지일 수도 있겠다. 감히 말할 수 없지만, 80년 5월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에서 사라질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날들로 인해 그저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느껴진 부분이였다.

6장의 시점이 처음에는 동호의 할머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중간부터 동호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듣고, 확실히 시대 배경과 화자의 말투와 표현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사소하지만 기억에 남는 부분 중 하나이다.

홍지혜: “그때 나는 수유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이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그때’란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다. 나라도 그때 태어났다면,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거다. 나랑 같은 또래의 아이가 광주에서 무슨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지 까마득하게 모른 채로 말이다. 그래서 저 문장은 나중에야 서울에서 평범하게 태어난 나랑 광주를 이어주는 느낌을 준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지만, 그곳이 나와 아예 연관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게 해준다. 같은 나라 안의 도시, 시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가 사는 동네랑 큰 차이 없을 광주로 기억하게 한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김선영 (2111207)	<p>그동안 얼마나 역사에 무관심했고, 무지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소년이 온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표면적인 고통과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내버린 당시의 정치 체계와 현실 그리고 이에 희생되어야 했던 모든 이들의 내밀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살인과 폭력의 집합체를 이제껏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한강 작가는 광주의 모든 ‘흔’들이 겪어야 했던 불공정하고 잔인한 참사를 여러 시점으로 서술하며 독자의 지인,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와 동료의 참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각 장이 시작할 때에는 누구의 이야기일지 궁금해 하다가도 곧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숨이 막히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깝거나 슬프기만 했다면, 이야기의 전말이 밝혀질수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샘솟는다. 이 책을 읽는 나는 ‘동호’이기도 했다가, ‘정대’이기도 했다가, ‘은숙’과 ‘선주’ 그리고 총을 쏘지 못한 송고한 영혼이 되기도 한다. 몰입하여 읽다 보면 어느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잔인하고 욕심 투성이이며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인 것인지 그렇다면 송고한 심장을 바쳐가며 광주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어떤 존재인 것인지 정답 없는 물음만을 계속하게 된다. 이런 질문이 이어질수록 인간의 본질이 송고한 양심 앞에서 기쁨을 느끼는 선한 존재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p> <p>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듯, 인간의 역사에는 늘 폭력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 현 세대 역시도 수많은 폭력을 동반하며 큰 굴레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년이 온다』와 같은 지속적인 비극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되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기 위해 올바른 삶을 살며, 올바른 편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p>
	2	이경남 (2111181)	<p>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최근 읽었던 책 중 가장 읽기 힘들었던 책이 아닌가 싶다. 1장부터 에필로그까지 한 호흡에 읽은 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숨이 턱 막혀 와 중간중간 책을 덮기도 하였다.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다. 분명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해 수많은 접해온 시대였음에도 새롭게 고통스러웠다. 이 책은 표현과 구성의 신선함과 내용 속 고통 그 자체로 다가온 책이었다. 「소년이 온다」는 활자로 보여 줄 수 있는 특유의 묘사를 통해, 그리고 장마다 다른 인물들의 시점을 통해 80년 5월 광주의 그날의 사실과 진실을 담고 있으며 독자와 현 사회에 질문도 던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떠오를, 마음에 박힌 질문들이었다.</p> <p>4번의 만남 동안, 우리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정적으로 현 사회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다. 나 역시 인간의 욕심과 폭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며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지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으며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민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다.</p>
	3	홍지혜 (2111148)	<p>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이 떠오르며, 영화 <1987>이나 <변호인>의 시위 장면과 재판 장면이 기억난다. 그런 면에서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5월이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광주의 5월은 단지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달이 아니라, 시체를 덮는 소년들 그리고 각자의 소년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시간이었음을 알려준다. 역사는 인과관계를 가진다. 독재자 박정희가 암살당한 사건은 전두환의 12·12사태로 이어졌고,</p>

		<p>5.18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인과 속에 녹아 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들의 감정, 행동, 기억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역사를 체감하게 만든다. <소년이 온다>는 나라가 국민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체감하게 해줬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를 다룬 어떤 이야기보다 강렬하게 와닿는다. 간혹 그런 말을 들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한 말인지를, 절대로 쉽게 뺄 수 없는 말임을 이제는 알게 됐다.</p>
--	--	---